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7
----------	-----

발의연월일 : 2024. 6. 20.

발 의 자 : 모경종 · 박해철 · 복기왕
주철현 · 허종식 · 김한규
임미애 · 윤건영 · 이광희
최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일 노동경제연구소(Institute of Labor Economics)가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 제도 사례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보다 제도의 유연성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지는 등 육아휴직 사용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에서는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한다거나, 조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대상도 부모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근로자 개별 상황에 맞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조부모로 확대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자녀 또는 손자녀(입양한 자녀 또는 손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전단 중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를 “나누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u>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육아휴직) ① ----- ----- ----- ----- ---- <u>자녀 또는 손자녀(입양한 자녀 또는 손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u>2회에 한 정하여 나누어</u>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u>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u>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 ----- <u>나누어</u> ----- ----- ----- <u>나누어</u> <u>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